

###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발히 움직이는 작가3

〈손석〉전 프랑스에 거주하는 중견작가 손석의 첫 번째 국내 개인전. 손석은 캔버스 위에 물감을 층층이 쌓아 올려 벽 모양의 기다란 블록을 구축한 다음 다시 그 위에 물감을 겹쳐나가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작가는 두꺼운 물감층으로 이뤄진 요철의 높이를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도록 조절하여 반원형의 화면을 구성한 다음, 그 위에 무수한 색깔을 올려 이미지를 완성한다. 이렇게 완성한 이미지는 바라보는 방향과 각도에 따라 변화할 뿐 아니라 반원형의 화면으로 인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시를 유도한다. 인사아트센터에서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문의 02-736-1020.

〈사유의 숲〉 금동원 그림에 넘쳐나는 풍요로움은 보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자극한다. 그의 그림을 감상할 때는 눈을 통해서 볼 뿐 아니라 작가에게 매료되어 저절로 그림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것 같다. 1990년대 말 프랑스와 호주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작가는 한국으로 돌아와 양평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인사아트센터. 문의 02-736-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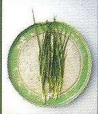
〈Passages, 경계가 아닌 통로〉 젊은 작가 민정연은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열린 개인전마다 매진 기록을 세우며 작품의 깊이와 원숙미를 인정받고 있다. 작년 뉴욕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영국 현대미술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치갤러리 대표 찰스 사치가 그의 그림을 매입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그는 대립적인 세계, 예컨대 추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미세한 것과 거대한 것 등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 대립을 극단적이고 모순적으로 그린다. 10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아이엠아트. 문의 02-3446-3766.◎



현대미술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치갤러리 대표 찰스 사치가 그의 그림을 매입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그는 대립적인 세계, 예컨대 추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미세한 것과 거대한 것 등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 대립을 극단적이고 모순적으로 그린다. 10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아이엠아트. 문의 02-3446-3766.◎

글 박경실프리랜서 편집 나도연 기자doriver@design.co.kr

#### 주목할 사진 전시



**김영수 〈장(場)을 보다〉** 광고 및 요리 사진가인 김영수 교수가 20년만에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2004년 여름 이후 전국의 5일장을 돌며 촬영한 작품 70여 점을 담고 있다. 작가는 5일장 이가장 활발한 전국의 군 단위 장터 86곳을 매 주마다 찾았으며, 불가울한 한 달 중 열흘 이상 장터에서 살았다. 기존 장터 사진과 달리 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직 그곳에서 유통되는 재품을 완벽한 조명으로 대형 카메라로 촬영해 마치 작품 카탈로그에 등장하는 값진 물건처럼 묘사했다. 10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성곡미술관에서. 문의 02-737-7660.

**〈민병현 사진전〉** 민병현은 전통적인 인화 방식을 고수하는 작가다. 일견 낫맛한 듯 심은 그림의 뛰어난 그래픽 언어가 생명인데, 이는 작가의 손을 거쳐 지워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스노우랜드' 연작 가운데 미 발표작 10여 점과 1998년의 '인간계 시리즈', 2000~2003년의 '어둠' 시리즈 중 대표작을 볼 수 있는 기회. 10월 4일부터 28일까지 공근해갤러리에서. 문의 02-738-7776

## Exhibition

For The GoodLife  
10월에 열리는 좋은 전시를 소개합니다.

#### 이달의 전시

**〈김원숙전〉**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예화랑에서 열리는 김원숙 개인전은



일기를 쓰듯 혹은 독백을 하듯 다정하고도 은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른바 현대미술의 난해한 이론이나 현학적인 개념이 자리할 틈 없는 이번 전시회는 '사랑'이라는 달콤한 주제처럼 아름답고 진전하게 형성화된 그의 작품이 한 편의 동화처럼 엮여져 있다. 문의 02-543-5543

**〈해태가 사는 집〉** 조각가이자 사진가인 황진은 예로부터



척 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믿어온 해태상을 10여 년 동안 모았다. 자신의 집을 '해태 박물관'처럼 만들어버린 그는 오래된 돌조각상에서 오만가지 표정을 읽는다. 사진 속 해태는 때론 정경고 때론 해학적이며 때론 엄하다. 이처럼 다양한 해태의 표정에 집중하기 위해 자연광 아래에서 흑백으로 촬영했다.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갤러리담에서. 문의 02-738-2745

#### 〈천연석으로 그린 그림〉

천연석을 팔레트 삼고 금속을 붓 삼아 캔버스에 그림 그리는 김승희 교수의 전시. 손바닥에 색 들어오는 이담한 브러시는 '가슴박의 미니 정물화' '내 가슴에 깃는 산수화'라는 전사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위해 제작한 브러시들은 자연이 날은 천연석 그대로의 색감과 인간이 만든 금속이 얼마나 절묘하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오프를 라세 갤러리에서 10월 9일부터 30일까지. 문의 02-511-6688



#### 〈2007 금강자 연미술프리미 앤날레〉

'자연'이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작가 1백30여 명이 모였다. 이번에는 자연에 대한 새로운 예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전세계 작가들의 우량블로 이루어진다. 독일 작가가 에다 아커만이 보낸 '1㎡의 습지와 풀란트 작가 이력 기스티시'가 나무를 이용해 만든 '패턴' 등 다양한 프로젝트는 작가 개인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고가 독특한 미학과 상상력으로 표출되어 있다. 11월 30일까지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시실과 야외 전시장에서. 문의 041-853-8828

